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다

04



위험을 읽는 조직





실행의 순간: 안전은 행동이다









깨어나는 조직, 안전의 의미

1. 사고는 신호다: 위험을 감지하는 조직의 감각

2. 안전은 의식이다: 리더십이 깨어날 때 시스템이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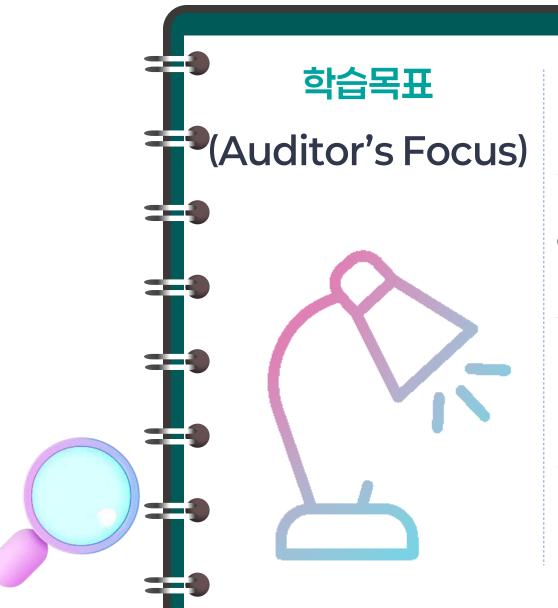


조직이 살아 있다는 것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01. 깨어나는 조직, 안전의 의미

ISO 45001:2018 Clause 4, 6, 8, 9, 10 (조직의 상황, 리스크 및 기회, 운영통제, 성과평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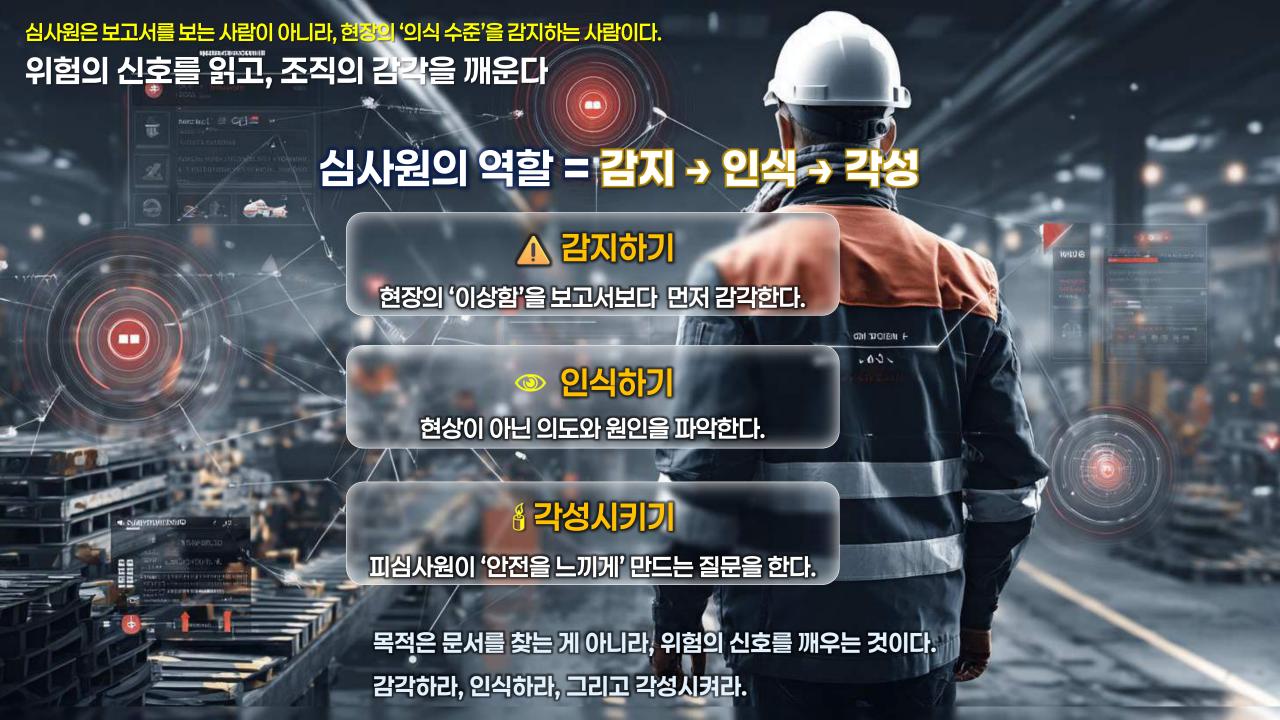


① ISO 45001의 제정 배경과 철학을 이해한다.

② '사고는 실패가 아니라 신호'라는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안전문화의 핵심 요소(리더십·참여·의식)를 식별할 수 있다.

④ 심사원의 역할을 '위험을 감지하고 각성을 이끄는 리더'로 인식한다.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목소리를 들어라

Tall nother

사고는 신호다. 조직이 깨어나는 순간.



"조직은 사고를 단순한 결과로 보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학습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10.2 시정조치 근거)

Sernational notice

왜 사고에서 시작하는가

학습 포인트

- ISO 45001은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가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는 체계'
- 리더십은 "무엇을 지시할까"보다 "무엇을 느끼게 할까"를 고민해야 함
- "Zero Accident"보다 "Zero
 Blindness" (위험을 못 보는 조직이 가장
 위험하다)



사고를 막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인식이다



사고의 본질은 통계가 아니다

- ISO 45001은 **사고율을 줄이는 것보다 감지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조직의 안전 수준 =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듣는가
- 감지 실패는 곧 학습 실패이다.



시스템 속에 숨은 신호를 읽을 수 있을 때, 조직은 진짜로 깨어난다.

ernational A

조직은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는가

- 리더십은 "위험예방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게 하는 것"이다.
- 리더는 "현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시스템의 감각을 깨우는 사람"이다.
- 안전의 성숙도는 **리더의 인식 속도와 일치**한다.
- '안전회의 참석'보다 '위험 신호를 듣는 태도'가 진짜 리더십이다.



리더의 의식이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한다." (5.1 리더십 및 헌신)



리더의 감각이 조직의 안전을 결정한다

- 리더의 '관찰'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감'이다.
-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리더의
 주의(attention)에서 확산된다.
- 리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는 곧 조직이 "무엇을 인식하는가"다.





조직의 감각은 참여로 깨어난다

- 근로자는 위험을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지의 주체'다.
- 리더십과 참여는 '명령-보고' 구조가 아니라'공감-감지' 구조다.
- 조직의 안전문화는 '참여의 빈도'보다 '공감의 깊이'에 의해 성장한다.



사고는 끝이 아니라 시스템의 목소리다



깨우는 조직, 학습하는 시스템

- 사고는 '실패'가 아니라 '메시지'다.
- 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리더십이 깨어날 때 시스템은 학습한다.





심사원의 포커스: 깨어있는 조직을 읽는 법



"심사는 절차의 검증이 아니라, 의식의 증거를 찾는 일이다." (ISO 19011 기반)